

# 朝鮮文人 李殷相 詞의 特徵 考察\*

金智賢\*\*

## 目 录

1. 머리말
2. 이은상 사 개관
3. 형식상의 특징
4. 내용상의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의 선조 문인들이 문학 작품을 향유했던 주요한 방식은 중국에서 유래한 문자인 한자를 이용해서였다. 이것은 조선 세종 시대에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은 물론, 한글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갖추어진 이후로도 이어져, 근대화기에 이르기까지 한자 기반의 문학은 전통적 사대부 문학의 주요한 흐름을 이루었다. 긴 세월 이 땅의 지식인들이 창작한 각종 한자 문학은 다채로운 유산으로 축적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전통문화의 큰 축 중 하나로서 빛나고 있다.

우리의 한자 표기 문학은 그것이 자생성을 띠는지 외래 조류에 따른 것인지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기록 수단으로 한자를 사용하였으되 한국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이두, 향찰 방식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형식 또한 개성이 돋보이는 문학으로, 신라 향가나 고려 경

\*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지원받았음.

\*\* 서울대학교 人文學研究院 中國語文學研究所 客員研究員

기체가를 들 수 있다. 후자는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장르, 내용 등의 면에서 중국문학과 그 창작 및 향유의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각종 詩賦類와 文章類<sup>1)</sup>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양적인 면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는 것은 후자로, 최초의 한국한문학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고조선 시대의 「箜篌引」<sup>2)</sup>이나 고구려 琉璃王 작으로 알려진 「黃鳥歌」<sup>3)</sup> 이래, 우리의 선조들은 다수의 중국 문학 장르를 받아들이며 그와 유사한 수준의 한자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였다. 비록 그 문자와 문학양식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일지라도, 중국과는 엄연히 정서, 관습, 풍토 등이 다른 우리 땅에서 우리말을 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가꾼 선조들이 이룬 문학이기에, 한국한문학에는 분명히 우리의 민족 정신이 흐르고 있으며 중국문학과는 구분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시대부터 삼국,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여러 장르와 다양한 형식의 중국문학 조류가 이 땅으로 유입되었다. 중국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언어를 평소 입말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한자 및 한문문법은 일종의 ‘외국어’였다. 그러나 그것을 습득하는 고되지만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 중국 문인들이 쓴 다방면의 작품을 접하며 그 문학적 이해도를 높였고 또한 직접 창작을 즐기기에 이르렀다. 외래문학을 받아들여 그것을 철저히 체화하고 친숙하게 향유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마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한국한문학 갈래의 전범을 『동문선』에 두어, 辭賦·古詩·律詩·絕句·排律·詔勅·教書·制誥·冊文·批答·表箋·啓狀·露布·檄文·箴·銘·頌·贊·奏議·箴子·雜文·書牘·記·序·說·論·傳·跋文·致語·辨·對·志·原·牒·議·雜著·策題·上樑文·祭文·祝文·疏文·道場文·齋詞·青詞·哀詞·誄文·行狀·碑銘·墓誌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를 다시 글의 성격별로 무을 경우, 詩賦類·論辨類·奏疏類·詔令類·序跋類·贈序類·傳志類·雜記類·私牘類·小說類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613](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613))

2) 「箜篌引」(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公將奈何)은 四言四句의 樂府 형식을 띠고 있으며, 그 저자는 고조선 사람 霍里子高的 처 麗玉이라 보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는 고조선으로 이주한 한나라 사람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김태준, 『역주조선한문학사』, 32쪽 참조.

3) 「黃鳥歌」(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의 경우 중국 최초의 시집 『詩經』 수록작과 겨룰 만하다는 평도 있어,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앞의 책, 33쪽 참조.

장르마다, 시대마다 무수한 도전과 응전이 있었다. 그 거대한 흐름에 좀 더 근접해 관찰하고 유의미한 흐름을 포착해 문학사적, 문화사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 이 또한 韓中 언어문화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중기 李殷相(1617~1678)의 사 창작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한국 문인이 신흥 중국시가문학을 수용하였던 양상의 한 단면을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중국문학의 한반도 전래 초창기부터 시가문학이라면 古詩 등의 정형 한시에 익숙해 있던 상황에서, 송대에 흥성하여 12세기 전후로 비로소 고려 문단에 유입된 사는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sup>4)</sup>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경향은 이어졌는데, 이는 문인들이 사라는 장르를 접한 기간과 경험이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서 미지의 영역처럼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사는 정형구가 아닌 장단구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 본디 노래 가사에서 발전한 관계로 중국 악곡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 각양각색의 사패마다 평측이나 운자 규칙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등 사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지만은 않았던 까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적 생소함이나 일견 복잡하게 여겨진다는 난관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와 조선의 문인 다수는 사라는 또 하나의 외래 장르를 받아들여, 중국 詞文學을 감상하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창작에 나섰다. 현재 학계에 보고된 한국 사 작품은 2,121수에 달하며, 1수 이상의 사를 남긴 작가는 총 339명이다.<sup>5)</sup> 이러한 한국 詞文學의 성과가 우리의 한문학, 나아가 전통문화 유산을 더욱 풍성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다만 지금의 한국 사 연구 현황은 아직 많은 부분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

4) 류종목(1999)은 중국 詞와 詞樂이 처음 고려에 들어온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史料를 근거로 들어 宣宗(1083~1094 재위), 睿宗(1105~1125 재위) 시기에 몇 차례로 나누어 그 도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고려 및 조선 문단에 있어서의 중국 사문학의 수용과 전개」 190쪽 참조.

5) 현재 학계의 한국 사 발굴 상황은 류기수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그는 『歷代韓國詞總集』(2007)에 한국 사 원문 1250수를 171명 작가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 미발굴 작품 871수를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歷代韓國詞總集』補正記」(2012), 「中國詞의 受容과 創作 : 새로 발견된 高麗·朝鮮詞를 中心으로」(2013) 등 참조.

있다. 기존의 연구는 사 전래 초기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나 李奎報, 李齊賢 등 소수 유명 문인의 사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다 다양화된 시점에서의 분석과 전방위적 접근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도와 성과의 축적을 통해 보다 많은 한국 詞人들의 작품이 학계와 일반에 소개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 詞文學史 정립 등과 같은 중차대한 목표에도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2. 이은상 사 개관

이은상은 황해도 延安을 본관으로 하며, 자는 說卿, 호는 東里이다. 1617년에 부친 李昭漢과 모친 驪州 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提學에 올랐던 조부 李廷龜(1564~1635)는 조선 중기 한문학 4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외조부 李尙毅 역시 1613년(광해군 5)에 衛聖功臣 3등에 녹훈된 바 있어, 명망 있는 사대부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은상 본인 역시 1651년(효종 2) 문과 을과 급제 후 비교적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여, 훗날 大司諫(1666), 都承旨(1668), 刑曹判書(1674) 등을 역임하였다. 顯宗(1659~1674 재위) 서거 후 哀冊文 찬진이라는 중요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아 문신으로서의 문필력 또한 官界에서 인정받았던 듯하다. 1678년에 생을 마쳤으며, 諡號는 文良이다. 1702년에 외손 金鎭華가 문집 『東里集』을 간행하였다.<sup>6)</sup>

『동리집』은 총 16권 5책의 목활자본으로, 원본은 현재 규장각 도서로 보관 중이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詩’로서, 권1부터 권9에 걸쳐 1059수가 수록되어 있다.<sup>7)</sup> 이은상의 사는 바로 이 詩卷 중에 나뉘어 실려 있는데, 권4에

6) 金鎭華의 부친은 西浦 金萬重(1637~1692)이다. 즉 김만중은 이은상의 사위인데, 그가 刪定하여 간직하던 장인의 유고를 아들에게 전했다는 점에서 김만중 역시 『동리집』 간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셈이다.

7) 그 외 『동리집』의 구성 및 수록작품 규모는 다음과 같다. 【권10】 疏 21편. 【권11】

1수, 권5에 29수, 권6에 7수, 권7에 1수, 도합 38수가 전한다. 전체 詩卷 중 사는 3.59%를 점해 일견 적게 여겨지지만 작품 수 자체만으로 보면 총 38수를 남긴 이은상은 오늘날 그 사가 전하는 조선 문인들 중에서는 詞作 편수가 많은 쪽에 속한다.<sup>8)</sup>

이은상의 사를 總覽할 때 가장 특이한 사항은 38수 중 28수가 금강산 유람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 28수는 모두 그의 문집 권5에 수록되어 있는데, 출발과 도착의 상황, 여정 중 거쳐 간 곳의 지명과 그 풍경, 만난 인물들 및 겪은 일화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여행기로서 충실한 기록이 되고 있다. 다음은 일련의 금강산 유람 사 중 첫 번째 작품과 마지막 작품의 題序이다.

갑진년(1664) 8월 9일에 관아에서 말미를 얻어 **학성을 출발하였다**. 고성 지역에서 목욕을 할 것이며, 그 김에 가서 금강산을 둘러볼 것이다. 출발에 임박해 붓을 급히 움직여서 문곡 대학사<sup>9)</sup>께 「유초청」을 보내어 보여드린다.<sup>10)</sup> (「柳梢青(細草垂楊)」 題序)

저녁에 **학성으로 돌아와** 「접련화」를 읊조리고, 문곡 대학사를 그리워하다.<sup>11)</sup> (「蝶戀花(紅蓼花殘秋已老)」 題序)

箭 1편, 啓 10편. 【권12】 表箋 6편, 批答 2편, 敎書 2편, 論書 5편, 書敍·上樞文·序·跋·策問 各 1편. 【권13】 祭文 24편, 策文 1편. 【권14】 行狀 1편. 【권15】 墓碣 1편.

【권16】 別稿.

- 8) 현전하는 작품 수 기준으로 조선 문인 중 이은상에 비해 詞作 편수가 많은 이는 趙冕鎬(63수), 李衡祥(46수), 曹友仁(43수), 申光漢(41수) 뿐이다.
- 9) 金壽恒(1629~1689)을 말한다. 김수항의 자는 久之, 호는 文谷이다. 西人으로서 두 차례의 禮訟 때 南人과 대립했으며, 뒤에 西人이 老·少 양당으로 갈리자 김수항은 老論을 이끄는 영수가 되었다. 저서에 『文谷集』과 「松江行狀」 등이 있다. 시문에 뛰어났고, 특히 당대의 駢儷文 일인자로 손꼽혔으며, 사는 현재 2수가 전한다.
- 10) 甲辰八月初九日, 受由於巡營, 發鶴城. 將沐浴於高城地, 仍往觀金剛山. 臨發, 走筆和文谷大學士寄示柳梢青小令.
- 11) 夕還鶴城, 口占蝶戀花, 有懷文谷大學士.

이 중 도착의 상황을 말한 제서에는 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그 앞의 앞 작품인 「柳梢靑(寂寞汀洲)」, 즉 (8월) 26일이라 밝히고 동해 새벽 일출을 구경했다는 요지의 제서가 있는 사와 같은 날 쓰인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곧 이은상은 8월 9일에 학성을 출발해 26일에 같은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총 17박 18일간 금강산 유람을 하였던 것이다. 이은상 사의 7할 이상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이유는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 그가 모종의 계기로 인해 유독 이 즈음에 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거나, “평생의 소원”<sup>13)</sup>으로 삼았던 곳을 유람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사 발달기의 花間派 사에서 유래한 여흥성과 맞물려 작용하였거나 등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으나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다. 훗날 『동리집』에 수록된 여타 시문 분석이 이루어져 그 도움을 받는다면 다소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3. 형식상의 특징

#### 1) 제서의 필수적 동반

題序란 작자가 작품 서두에 간략한 注 또는 짧은 序文의 형태로 남긴 글을 말한다. 제서는 사의 구성상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작자의 선택에 따라 넣을 수도, 넣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사 발달기 및 흥성기에는 제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북송대 후반 이후로 점차 제서가 달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또한 규범화되었다고 논할 정도는 아니다.

12) 『동리집』 권5를 살펴보면 「柳梢靑(寂寞汀洲)」, 「減字木蘭花(秋容已暮)」, 「蝶戀花(紅蓼花殘秋已老)」가 바로 연달아 실려 있다. 이 3수 사이에 다른 詩詞가 끼어 있지 않고, 또한 「柳梢靑」의 “二十六日” 이후로는 일자 표기가 따로 없으므로, 이은상이 학성으로 돌아온 것 또한 같은 날인 26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이은상은 「錦堂春(滿壑蒸霞瑞霧)」에 “진기한 유람 하며 다행히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데(奇遊幸遂平生願)”라 하였다.

이은상의 사는 전체가 각기 제서를 동반하고 있다. 사 38수에 예외 없이 모두 제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sup>14)</sup> 이는 곧 이은상의 사 창작 관이나 사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서, 필시 그는 사를 지을 때 본문에 더해 제서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흡족하다고 여겼던 듯하다.

사의 제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李冬紅(2002)은 제서의 주요 내용으로 작사의 시간과 장소 기록, 작사의 유래와 배경 서술, 사의 내용과 의미 설명 등이 있다고 하였고<sup>15)</sup>, 陶善達(2014)은 제서의 기능으로 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상을 돕는 기능, 사실 기록을 통한 사료적 가치 기능, 제서 자체의 미학적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sup>16)</sup> 이은상 사의 제서 역시 이러한 내용과 기능에서 대체로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짧은 제서는 「惜分飛(淸秋塞外送將歸)」의 “회양관에서 막내 동생에게 주다”<sup>17)</sup>로, 사를 지은 장소와 누구에게 주는 사인지를 밝혔다. 보다 긴 편폭의 제서에서는 유람 중에 마주한 특별한 풍경을 묘사하거나 일행들과의 유쾌한 일화를 기술하여, 사 본문의 감흥을 더욱 깊고 세밀하게 전하였다. 「柳梢靑(寂寞汀洲)」의 제서를 보자.

26일에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았는데, 붉은 색이 번쩍거리며 타더니 옥쟁반이 튀어 올라 바다의 파도가 금색이 되었다. 불수레바퀴가 한 자 남짓 솟아올랐고 아래에는 홍운이 한 다발 뭉쳤다. 마치 경대가 바다 속에서 빙빙 도는 것 같더니 한참 후에 꺼졌다. 이날 서풍이 바다 구름을 날려 흩뜨려 만 리가 한 가지 색을 띠었고

14) 일부의 경우, 복수의 작품이 하나의 제서를 공유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如夢令(雲捲海天如水)」, 「長相思(坐相思)」, 「點絳脣(空館夜涼)」은 다음의 제서를 공유한다. “정오에 통주를 출발하여 30리를 가 문암에 이르렀는데, 큰 바위가 우뚝하니 공중에 반쯤 서 있고 그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 문을 이루었다. 그 위로는 외톨이 소나무 한 그루가 큰 바위에 뿌리를 내려, 그것을 보자니 마치 덮개 같았다.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몇 리까지 들렸다. 저녁에 임두촌에서 숙박하였는데, 김구지가 그리워져 소령 세 편을 구점하였다.(午發通川, 行三十里抵門巖, 有大石屹立半空中, 其中有穴成門. 其上有孤松一株着根於大石中, 望之如蓋, 海水衝石, 聲聞數里. 夕宿林斗村, 有懷金久之, 口占三小令.)”

15) 李冬紅, 「宋論題序略論」, 『貴州社會科學』(總178期 第4期), 2002.

16) 陶善達, 「論宋詞題序的功能」, 『時代漫遊』(第4期), 2014.

17) 淮陽館贈舍季

한 점 티끌도 가리는 것이 없어 참으로 장관이었다. 바람이 세차서 국도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압옹을 떠나며 김구지를 그리워하다가 「유초청」 소령을 부쳐 보았다.<sup>18)</sup>

금강산 유람 마지막 날 새벽에 동해 일출을 감상하고 그 풍경과 소회를 쓴 글이다. 이 제서 下의 사 본문 자체에는 직접적 일출 관련 내용은 없고, 대신 풍광 좋은 곳에서 그리운 이와 함께 하지 못한 쓸쓸함을 토로하였다.<sup>19)</sup> 이처럼 사 본문에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의 부연 서술을 짧게건 길게건 반드시 제서로 덧붙였다는 것은 사의 完整性을 높이고자 했던 이은상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서를 통한 완성성 추구의 이유는 크게 보아 사 자체의 특성과 개인적 성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패별로 장단구 배치와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사의 특성상, 한정된 편폭 안에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쉬우며, 평소 詞作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라면 더욱 그 개연성이 높다. 이에 이은상은 사 본문에 미처 못 넣은 여러 관련 사항들을 제서로 남겼던 듯하다. 한편 이러한 부수적 관련 사항을 사 본문이 아닌 별도의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여부는 작자의 성격이나 판단 등의 개인적 성

18) 二十六日, 早起看日出, 紅光閃爍, 玉盤涌出, 海波爲金色. 火輪超上一尺許, 下有紅雲一朵. 如鏡臺流轉海中, 良久而滅. 是日西風吹散海雲, 萬里一色, 無纖毫蔽礙, 真是奇觀. 因風高不得入國島. 發押戎, 有懷金久之, 次寄示柳梢青小令.

19) 다음은 그 「柳梢青」 본문이다.

|       |                    |
|-------|--------------------|
| 寂寞汀洲, | 쓸쓸한 물가             |
| 沙邊落雁, | 모래톱에 기러기 내려앉는데     |
| 別恨閑愁. | 작별의 한이 시름겹구나.      |
| 宿雨新晴, | 간밤의 비가 갓 개더니       |
| 寒雲暮捲, | 한기 뱀 구름이 저녁에 따리 틀고 |
| 風送孤舟. | 바람이 외로운 배를 띄워 보낸다. |

|          |                         |
|----------|-------------------------|
| 名區處處回頭,  | 경치 좋은 곳마다 고개 돌리는데       |
| 最不忘正陽東樓. | 가장 못 잊을 곳은 정양동루로다.      |
| 萬壑輕雷,    | 만 고랑 골짜기에 가벼운 우레 소리 울렸고 |
| 千岩紅錦.    | 천 개 바위, 붉은 비단           |
| 詩句相酬.    | 시구로 서로 응수하였다.           |

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은상은 제서를 꼼꼼히 작성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완성성을 높이고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위 제서 속 일출 묘사가 조선 후기 순한글 기행수필로 유명한 意幽堂 南氏의 「東溟日記」<sup>20)</sup>와 그 일부 표현이나 단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두 작품 모두 햇빛으로 붉게 물든 바다를 ‘홍운’이라 한 점, 해를 ‘쟁반’에 이어 ‘수레바퀴’에 비유한 점, 해가 빙빙 또는 훌훌 ‘둥글게 돌았다’라고 묘사한 점, 말미에 기이한 ‘장관’이라고 압축해 표현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상의 「柳梢靑」 제서는 1664년, 의유당 남씨의 「東溟日記」은 1772년에 지어져 100여 년의 시차가 있고, 기록 문자 역시 각각 한문과 순한글로 같지 않지만, 조선 중후기 사람들의 일맥상통하는 운치와 비유 표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韓·中 문학 비교 연구의 묘미 중 하나일 것이다.

## 2) 다양한 사패 사용

이은상 사 38수에 운용된 사패의 일람을 위해 『동리집』 권4~권7 내 사

20) 「東溟日記」 속 일출 묘사 장면은 다음과 같다.

홍색(紅色)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뒤흔더니, 이량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십시오” 외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나비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붉기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郎)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 붉은 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 장 나비만큼 반듯이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차차 커 가며, 큰 쟁반만하여 불긋불긋 번듯 번듯 뒤흔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하며 향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히 번득여 양목(兩目)이 어질하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헤치고 천중(天中)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물 속으로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향아리, 독 같은 기운이 스러지고, 처음 붉어 걸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 속에 풍덩 빠지는 듯싶더라. 일색(日色)이 조요(照耀)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광이 청량(晴朗)하니, 만고 천하에 그런 장관은 대두(對頭)할 데 없을 듯하더라.

수록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번호는 그 수록 순서에 따라 편의상 붙인 것이며, 이후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모든 작품 번호는 이 표에 따른다.

| 권 | 작품 번호 | 사패  | 권 | 작품 번호 | 사패    | 권 | 작품 번호 | 사패    | 권  | 작품 번호 | 사패  |
|---|-------|-----|---|-------|-------|---|-------|-------|----|-------|-----|
| 4 | 01    | 長相思 | 5 | 11    | 翠桃源   | 5 | 21    | 望江東   | 6  | 31    | 憶秦娥 |
|   | 02    | 柳梢青 |   | 12    | 畫堂春   |   | 22    | 巫山一段雲 |    | 32    | 西江月 |
|   | 03    | 如夢令 |   | 13    | 錦堂春   |   | 23    | 踏莎行   |    | 33    | 西江月 |
|   | 04    | 長相思 |   | 14    | 謁金門   |   | 24    | 芳草渡   |    | 34    | 柳梢青 |
|   | 05    | 點絳脣 |   | 15    | 鶴冲天   |   | 25    | 江南春   |    | 35    | 西江月 |
|   | 06    | 清平樂 |   | 16    | 好事近   |   | 26    | 鷓鴣天   |    | 36    | 柳梢青 |
|   | 07    | 憶秦娥 |   | 17    | 浪陶沙   |   | 27    | 柳梢青   | 37 | 柳梢青   |     |
|   | 08    | 菩薩蠻 |   | 18    | 桃源憶故人 |   | 28    | 減字木蘭花 | 7  | 38    | 柳梢青 |
|   | 09    | 西江月 |   | 19    | 一絡索   |   | 29    | 蝶戀花   |    |       |     |
|   | 10    | 臨江仙 |   | 20    | 憶江南   |   | 30    | 惜分飛   |    |       |     |

이은상은 총 28종의 사패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패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그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사패는 「柳梢青」으로 총 6회이며, 다음으로 「西江月」이 총 4회에 이른다. 「長相思」와 「憶秦娥」도 각각 2회씩 쓰였다. 그리고 총 24개의 사패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이은상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소수의 사패만 애용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가급적 다양한 사패를 섭렵하며 詞作에 임하고자 했던 듯하다.

특히 금강산 유람 기간 중 창작한 사 28수(위 작품 번호 02~29)의 경우, 모두 27종의 사패를 고루 1회씩 사용하였으며, 1회 중복해서 쓴 사패는 「柳梢青」 뿐이다. 이은상이 여행 기간 18일 동안 28수의 사를 지으면서 사패를 거의 겹치지 않게 썼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데, 이는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예컨대, 모처럼의 명승지 유람이라는 특별한 비일상의 기간 동안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전까지는 거의 짓지 않았던 사를 집중적으로 짓기로 하고, 사 짓기 연습 겸, 숨씨 자랑 겸 다양한 사패를 치우침 없이 두루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은상이 당시에 이 27종의 사패를 모두 익히 외운 상태에서 유람 중 자유자재로 각 사패를 떠올려 사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각 사패마다 구절 수, 글자 수, 운자 배치 등이 모두 상이한 사의 특성상 詞譜類를 지참하여 필요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큰데, 이렇게 詞譜類를 가까이 두고 참조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술한 사패에 가급적 다양하게 도전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음직도 하다.

이은상이 사용한 사패 28종은 모두 小令으로 분류되는 비교적 짧은 사패이다. 「如夢令」, 「憶江南」과 같은 單片 형식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하 兩片의 雙調詞牌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각 편당 대체로 4~5구를 넘지 않는다.<sup>21)</sup> 이은상이 직접 제서에서 사패명 바로 뒤에 ‘小令’을 덧붙여 병기한 경우도 있었으니, 예를 들면 “30 리를 가서 낮에 문수파에서 쉬었다가 다시 백천교로 향했다. 「畫堂春」 小令을 구점하였다.”<sup>22)</sup>, “다시 「謁金門」 小令을 구점하여 부쳤다.”<sup>23)</sup> 등이다. 이은상 사가 짧은 사패 일변도인 이유는 小令이 아무래도 장편 慢詞보다 짓기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짧은 편폭에 대한 작자의 개인적 선호가 작용하여서일 수도 있다.

덧붙여, 이은상이 각 제서에서 사패를 밝히면서 그것을 “口占’하였다”라고 종종 명시하였다는 점 역시 짚고 넘어갈 만하다. ‘口占’이란 ‘초고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짓다’라는 뜻으로, 이른바 즉흥적 창작을 말한다. 이은상 사 제서에는 모 사패를 ‘口占’하였다는 표현이 23회, ‘占’하였다는 표현이 3회 등장한다. 실제로 이은상이 이러한 사들을 별다른 고심 없이 입에서 술술 나

21) 예외적으로 「柳梢青」은 상편 6구, 하편 5구로 구성되나 각 구당 글자 수가 적어 총 59자이다. 「芳草渡」는 상·하편 공히 8구이나 그 중 2개 구를 제외하고는 각 구당 3자의 반복으로 총 56자이다.

22) “行三十里, 午憩文殊坡, 仍向白川橋, 口占畫堂春小令.” 이것은 위의 표 작품 번호 12번 사의 제서이다.

23) “又占謁金門小令, 却寄.” 이것은 위의 표 작품 번호 14번 사의 제서이다.

오는 대로 손쉽게 지었는지, 또는 ‘口占’을 곧 ‘사를 짓다’의 의미로 삼아 사용한 일종의 관용적 표현인지, 아니면 사실은 신중한 구상과 퇴고를 거쳐 사를 지었음에도 표현만 이렇게 한 것인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이렇게 ‘손쉽게 즉흥적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밝혀 뒀으므로 해당 작품에 문학적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겸손함을 내보이고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너그럽이 보아 달라는 당부를 읽는 이에게 암암리에 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 3) 능숙한 운자 운용

자신이 ‘口占’의 방식으로 사를 지었음을 거듭해 밝힌 이은상이지만, 그는 사에서 요구되는 제반 형식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였다. 『동리집』 수록 사는 각 사패별로 정해진 분단 규칙, 장단구 배치, 글자 수 제한 등을 잘 지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운자의 경우, 사는 정형시처럼 짝수 구에 운자를 배치한다는 보편적 규칙이 없고 사패별로 운자를 두는 구의 위치가 다 달라서 한층 까다롭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은상은 이 운자 또한 능숙하게 운용하였다.

이은상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였던 「柳梢靑」 사패를 살펴보자. 「柳梢靑」은 49자의 쌍조사로, 정격은 다음과 같이 상편과 하편에 각각 3개의 평운을 둔다.

中仄平平(韻), 中平中仄, 仄仄平平(韻). 中仄平平, 中平中仄, 中仄平平(韻).  
 中平中仄平平(韻), 仄中仄, 平平仄平(韻). 中仄平平, 中平中仄, 中仄平平(韻).

실제로 이은상이 쓴 운자를 해당 구절 단위로 잘라 살펴보면 이러하다.

| 작품<br>번호 | 상편   |      |      | 하편     |      |      |
|----------|------|------|------|--------|------|------|
|          | 제1운자 | 제2운자 | 제3운자 | 제4운자   | 제5운자 | 제6운자 |
| 02       | 細草垂楊 | 水碧天長 | 舟下龍堂 | 孤村遠望斜陽 | 輕風晚涼 | 離恨難忘 |
| 27       | 寂寞汀洲 | 別恨閑愁 | 風送孤舟 | 名區處處回頭 | 正陽東樓 | 詩句相酬 |
| 34       | 宿雨新晴 | 秋入蟬聲 | 君向箕城 | 繁華獨數西京 | 山河愴情 | 陳迹愁生 |
| 36       | 小雨霏霏 | 隔岸柴扉 | 春入芳菲 | 當時景物依稀 | 棲禽亂飛 | 橋上人歸 |
| 37       | 細雨無痕 | 已近黃昏 | 溪上孤村 | 垂楊隱映柴門 | 風光尙存 | 歌曲新翻 |
| 38       | 宿雨新晴 | 平楚煙生 | 聊慰君行 | 斜陽隱映孤城 | 垂楊亂鶩 | 離思難平 |

정해진 위치마다 모두 평운이 정확히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36개 운자 중 2번 작품의 제6운자 ‘忘’은 현대중국어 4성으로 발음되나 古音으로는 다른 35자와 마찬가지로 평성이다. 예컨대 대표적 운서 『壬子禮部韻略』, 일명 平水韻을 보면 ‘忘’은 “下平七陽” 운부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리집』에 1000여 수의 정형시를 남길 만큼 평소 시를 가까이 하였던 이은상이었기에, 詩韻에 능숙하였던 만큼 詞韻에 관해서도 큰 어려움 없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였던 듯하다.

이러한 詞韻 운용력을 바탕으로 이은상은 次韻 기법을 활용한 차운사도 3수 남겼는데, 宋詞에 차운한 것이 2수, 朝鮮詞에 차운한 것이 1수이다. 이는 그가 詞 중주국의 원전 작품들을 직접 접하며 향유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차운사라는 상대적 후발의 사작 방식을 무리 없이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이은상의 차운사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작품 번호 | 사과  | 제서 중 차운 사실 관련 기록   | 차운한 원 작품 및 비고  |
|-------|-----|--|--|
| 13    | 錦堂春 | 진관의 「금당춘」에 차운하다.<br>(次秦少游錦堂春)                                    | 현전하는 秦觀 사 중에는 「錦堂春」 사과가 없다. 본 제서 내용의 규명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 24    | 芳草渡 | 「방초도」 소령에 차운하다.<br>(次芳草渡小令)                                      | 차운한 원 작품은 歐陽修의 「芳草渡(梧桐落)」로 추정된다. 이 역시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
| 27    | 柳梢青 | 압용을 떠나며 김구지를 그리워하다가 「유초청」 소령에 차운하여 부쳐 보이다.(發押戎, 有懷金久之, 次寄示柳梢青小令) | 차운한 원 작품은 金壽恒의 「柳梢青(柳岸蘆洲)」이다.                              |

#### 4. 내용상의 특징

##### 1) 구체적 사실의 반영

이은상의 사에는 실제 사실에 기반해 구체성을 띠는 부분이 거의 매 수마다 포함되어 있다. 제서나 사 본문에 구체적 일자나 절기가 드러나 있고, 조선의 자연 경관이 묘사되어 있으며, 실존 지명, 지물, 인명 등의 고유명사도 다수 언급되었다. 특히 강원도와 금강산 일대 실제 풍경과 지명을 사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고려 말 李齊賢(1287~1367)이나 조선 전기 李承召(1422~1484), 姜希孟(1424~1483) 등이 “瀟湘八景”<sup>24)</sup> 부제를 내세운 「巫山一段雲」 連作詞에서 중국 湖南 일대의 모습을 상상하여 허경을 묘사했던 것

24) 瀟湘八景은 중국 湖南省 洞庭湖 남쪽 瀟水와 湘江 주변의 8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일컫는 말로, 北宋代 산수화가 宋迪이 「瀟湘八景圖」를 그린 것이 유명해지며 많은 문인들도 그것을 詩詞로 노래하게 되었다. 8가지 경치란 瀟湘夜雨, 洞庭秋月, 遠浦歸帆, 平沙落雁, 烟寺晚鐘, 漁村夕照, 江天暮雪, 山市晴嵐을 말한다.

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은상 사 중 28수는 금강산 여행 일정 중에 지어진 것인데, 이 기간의 사에 보이는 일자, 지명 등의 사실 요소들을 추출해 정리하면 그의 여행 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이은상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조선 지리학, 향토학, 문화재학 등의 유관 학문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은상 사와 각 제서를 토대로 하여 그가 거쳐간 18일간의 여정을 일자별로 재구성한 것이다.<sup>25)</sup>

| 일자           | 지역             | 근거 기록   | 출처 및 작품번호       |
|--------------|----------------|---|-----------------|
| 1664.<br>8.9 | 학성             | 관아에서 말미를 얻어 학성을 출발하였다.(受由於巡營, 發鶴城)  | 02.<br>「유초청」 제서 |
|              | 통주<br>문암<br>임두 | 정오에 통주를 출발하여 30리를 가 문암에 이르렀다.(午發通川, 行三十里抵門巖)<br>저녁에 임두 마을에서 숙박하였다.(夕宿林斗村) | 03.<br>「여몽령」 제서 |
| 8.11         | 임두<br>남애       | 임두를 출발해 40리를 가서 오시에 남애에 이르렀다.(發林斗行四十里, 午抵南涯)                              | 06.<br>「청평악」 제서 |
|              | 응암             | 응암에서 잠시 쉬는데, 산은 갈수록 수려하고 물은 갈수록 맑아 이미 선경이다.(小憩瓮巖, 山益秀水益清, 已是仙境)           | 07.<br>「억진아」 제서 |
|              | 온주             | 다시 50리를 가서 온주에 이르렀다.(又行十五里抵溫井)  | 08.<br>「보살만」 제서 |
|              | 해산정            | 다시 20리를 가서 저녁에 해산정에 이르렀다(又行二十里, 夕抵海山亭)                                    | 09.<br>「서강월」 제서 |
| 8.13         | 삼일포            | 3리 가량을 가서 배로 삼일포를 내려왔다.(行三里許, 舟下三日浦)                                      | 10.<br>「임강선」 제서 |
|              | 사선정            | 오시에 사선정에 올랐다.(午登四仙亭)  | 11.<br>「취도원」 제서 |

25) 일부 일자 칸이 비어 있는 것은 그 출처 작품에 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다. 대체로 그 직전의 일자 명기 작품과 같은 날이거나 1~2일 후의 것으로 보인다.

| 일자   | 지역                       | 근거 기록  | 출처 및<br>작품번호           |
|------|--------------------------|--|------------------------|
|      | 문수과                      | 30리를 가서 낮에 문수과에서 쉬었다가 다시 백천교로 향했다.(行三十里, 午憩文殊坡, 仍向白川橋)   | 12.<br>「화당춘」제서         |
|      | 백천교                      | 백천교 언저리에서 자꾸 고개 돌리는데, 저녁에 까마귀 천 점 돌아간다.(百川橋畔頻回首, 千點暮歸鴉)  | 13.<br>「금당춘」본문         |
|      | 유점사                      | 유점사 문 밖 돌다리에 물이 흐른다.<br>(楡岾寺, 門外石橋流水)  | 14.<br>「알금문」본문         |
| 8.15 | 유점사<br>만경대               | 유점사를 출발하여 부도 갈림길에서 잠깐 쉬었다. 청허, 응상, 쌍언, 법견, 수일 스님 다섯 분의 부도가 서로 마주하며 서 있다. 만경대를 지나갔는데, 만경대 옆으로 난 바윗길이 험했다.(發楡岾, 小憩浮屠岐, 有淸虛, 應祥, 雙彥, 法堅, 秀一五浮屠相對而立, 過萬景臺, 臺畔石路崎嶇)   | 15.<br>「학충천」제서         |
|      | 미륵단                      | 10여 리를 가서 미륵단에서 잠시 쉬었다.(行十餘里, 小憩彌勒壇)   | 17.<br>「낭도사」제서         |
|      | 진주담<br>보덕굴               | 진주담을 지나 암석에서 잠시 쉬었다. 보덕굴을 구경하였는데, 구리 기둥이 수십 척 높이로 높다란 바위 위에 서 있다.(過眞珠潭, 小憩巖石, 望見普德窟, 有銅柱數十尺立於危岩上)<br>깊은 만폭동 계곡에 우레 소리 우르릉거리고, 백 척 진주담이 그 뒤에 있다. 보덕굴은 높이가 얼마인가, 천 년 구리 기둥은 옛 것이다.(洞深萬瀑雷聲吼, 百尺珠潭在後. 普德窟高幾許, 千年銅柱舊) | 18.<br>「억고인」제서 및<br>본문 |
| 8.17 | 마가연<br>미륵단<br>묘길상<br>비로암 | 마가연을 일찍 떠났다. 미륵단에서 잠시 쉬었다가 묘길상을 지나갔다.(朝發摩訶淵, 小憩彌勒壇, 過妙吉祥) 비로봉에 걸어 올라가 옥 피리 불고, 십주 삼도를 내려다본다.(步上毗盧吹玉笛, 俯看十洲三島)  | 19.<br>「억고인」제서 및<br>본문 |
|      | 비로암<br>마가연               | 비로암에서 잠깐 쉬고, 마가연에서 묵었다.(小憩毗盧庵, 宿摩訶衍)   | 20.<br>「억강남」제서         |
| 8.21 | 마가연<br>만회암               | 아침에 마가연을 출발해 몇 리를 갔다가 만회암에서 잠시 쉬었다. 만회암은 마가연 뒤에 있는데, 경치가 산뜻하며 보이는 것은 마가연과 거의 같다.(朝發摩訶衍, 行數里, 少憩萬灰庵, 庵在摩訶之後, 景致蕭灑, 所見與摩訶略同)   | 21.<br>「망강동」제서         |

| 일자   | 지역         | 근거 기록   | 출처 및 작품번호         |
|------|------------|---|-------------------|
|      | 은선대<br>백월암 | 은선대를 떠나 백월암에서 쉬면서 정양사를 그리워하다.(發隱仙臺, 憇白月庵, 憶正陽寺)   | 24.<br>「망초도」 제서   |
|      | 해산정        | 저녁에 해산정에 도착하여, 여섯 형제가 한 집에 묵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夕抵海山亭, 六兄弟同宿於一堂, 眞是盛事)   | 25.<br>「강남춘」 제서   |
| 8.22 | 호산대        |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고 식사 후에 호산대로 가서 구경하였다. 호산대는 약 2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경치가 또한 매우 맑고 온화하다.(早起看日出, 食後往觀湖山臺, 臺在二里許, 景亦清奇蘊籍) | 25.<br>「강남춘」 제서   |
|      | 고성         | 고성을 떠나다.(發高城)   | 26.<br>「자고천」 제서   |
| 8.26 | 압읍         | 압읍을 떠나며 김구지를 그리워하다.(發押戎, 有懷金久之)   | 27.<br>「유초칭」 제서   |
|      | 학포<br>아어소  | 학포를 출발하여 오후에 아어소에서 쉬었다.(發鶴浦, 午憇魚所)  | 28.<br>「감자목란화」 제서 |
|      | 학성         | 저녁에 학성으로 돌아왔다.(夕還鶴城)  | 29.<br>「접련화」 제서   |

한편, 작사 시점이 이 금강산 유람 기간 중이 아닌 작품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이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면모는 다음 절에서 이어 확인하기로 한다.

## 2) 뚜렷한 목적성

이은상 사는 대부분 그 제서나 본문에 사를 짓게 된 동기가 등장한다. 왜 이 사를 썼는지, 즉 어디 어떤 상황에서, 또는 누구를 위해, 또는 어디로 부치려고 작사하였는지 등의 작사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금강산 유람 중의 사 역시 여행의 기록으로 삼는다는 목적이 공통적으로 그 저면

에 있다고 하겠다. 다만 금강산 유람 사에 비해 여타 사는 그 목적성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동리집』 수록 사 중 가장 앞에 있는 「長相思」를 예로 살펴보자.

경성 판관이 서신을 주시어, 감사히 여기며 「장상사」 소령을 보낸다.  
鏡城判官有書, 謝寄長相思小令

|                                    |  |
|------------------------------------|--|
| 風滿樓,<br>月滿樓,<br>病起相思又一秋.<br>書傳地盡頭. | 바람이 누각에 가득하고<br>달빛도 누각에 가득하다.<br>병석에서 일어나 그리워하는데 또 다시 가을<br>편지가 땅 끝에 전해졌다. |
|------------------------------------|--|

|                                    |  |
|------------------------------------|--|
| 路悠悠,<br>夢悠悠,<br>一曲新翻寄莫愁,<br>遙想唱伊州. | 길도 아득하고<br>꿈도 아득하다.<br>한 곡조 새로 지어 막수에게 부치고<br>「이주가」 부르는 모습 멀리서 상상한다. |
|------------------------------------|--|

이은상이 ‘경성 판관’이라 칭한 지인의 서신을 받고서 그 답신으로 안부를 전하고 고마움과 그리움을 표하고자 지은 사이다. 鏡城은 함경북도 해안가에 위치한 곳으로, 하편 마지막 구의 ‘변방의 노래’를 뜻하는 ‘伊州歌’라는 표현과 잘 부합한다. 실제 인물과 지명이라는 구체적 사실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한 사를 지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은상 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다른 작품들 역시 구체적 사실 요소에 기반해 분명한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증별사로서의 목적을 가진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작품별로 그 구체적인 증별 관련 내용을 발췌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작품<br>번호 | 사과  | 증별 관련 내용   | 비고 |
|----------|-----|--|----|
| 30       | 석분비 | 회양관에서 막내 동생에게 주다.(淮陽館, 贈舍季.)   | 제서 |
|          |     | 10리 장정에 해 지려는 무렵, 애써 참으며 곧 돌아갈 이를 전송하는 자리이다.(十里長亭日欲暮, 認得送將歸處)<br>만났을 때 이런 이별의 고통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제 내치고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있으랴.(逢時知有此離苦, 可耐從今捨去)                | 본문 |
| 31       | 억진야 | 소령 2 수를 구점하여, 북백 권대운과 작별하면서 주다.(口占二小令, 贈別北伯權大運)  | 제서 |
|          |     | 가을이 곧 저무려는 무렵, 그대는 지금 함관로, 함관로로 향하려 한다.(秋將暮, 君今欲向咸關路, 咸關路)<br>세상 일 들쭉날쭉하여 헤어짐과 만남이 많았는데. 인생 늘그막이 되니 이별의 심정 괴롭구나, 이별의 심정 괴롭구나.(世故參差多散聚, 年華婉晚離懷苦, 離懷苦) | 본문 |
| 32       | 서강월 | 쓸쓸한 시름과 이별의 한 둘 다 삭히기 어려운데(閑愁離恨兩難消)  | 본문 |
| 33       | 서강월 | 「서강월」을 구점하여 내제 홍국경과 작별하면서 부채에 써서 주다.(口占西江月, 題內弟洪國卿扇面贈別)  | 제서 |
|          |     | 덧없는 인생이라 어찌 잠시 호젓할 수 있으랴, 어이하나 이번 이별로 애간장 쉬이 끊어지는 것을.(浮生那得暫時閑, 奈此離腸易斷)<br>연막의 나그네 행장이 초라하여라, 진루에서 이별의 눈물 흘린다.(蓮幕行裝潦倒, 秦樓別淚洶瀾)                        | 본문 |
| 34       | 유초청 | 관서 이태연 방백과 작별하며 드리다.(贈別關西李方伯泰淵)  | 제서 |
|          |     | 작별로 애간장 쉬이 끊어지는데, 그대는 기성을 향하는구려.(離腸易斷, 君向箕城)   | 본문 |
| 35       | 서강월 | 평안 병사 민성여에게 작별하며 주다.(贈別平安兵使閔聖與)  | 제서 |
|          |     | 등불 아래서 시 짓는데 짓구 잘 짓기 어렵나니, 강과 다리 저 멀리 전송하기 때문이다.(題詩燈下句難工, 爲有河橋遠送)  | 본문 |
| 38       | 유초청 | 작별에 임하여 「유초청」 소령을 구점하고 부채에 쓰다.(臨別, 口占柳梢青小令題扇)  | 제서 |
|          |     | 회양은 박하지 않다는 말로 애오라지 떠나가는 그대를 위로한다.(淮陽非薄, 聊慰君行)<br>출렁이는 깊은 술잔으로 정 깊은 이야기를 아쉽게 나누는데 이별의 심사는 가라앉히기 어렵다.(灑灑深杯, 依依情話, 離思難平)                               | 본문 |

이은상 사 중에 이렇게 증별사가 많은 이유, 즉 헤어짐의 자리에서 상대에게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朝鮮詞論 자료가 거의 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몇 가지 가설만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sup>26)</sup>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가설로서 이은상이 증별사를 통해 진심 어린 이별의 아쉬움을 성의껏 표현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 말에 전래된 이래 사가 점차 문인들에게 전파된 것은 분명하나,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도 그 창작 편수로 볼 때 사는 정형시에 비하면 여전히 덜 익숙한 장르였다. 형식 면에서의 생소함이나 까다로움을 극복하고 사를 짓는 것은 그만큼 더욱 많은 공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별의 자리에서 사를 지어 상대에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표하는 절절한 마음의 代辯이 아니었을까. 이은상은 증별사를 일종의 성심 가득한 전별 의례로 여기지 않았을까. ‘贈別’ 상황과 ‘作詞’ 행위의 交點에는 이러한 전후 사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5.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 중기 문인 이은상의 사 전체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은상의 사는 그의 문집 『동리집』에 38수가 전한다. 그 중 1664년 금강산 유람 중에 지어진 28수는 여행기로서의 성격을 겸하는데, 여행 중의 일정, 견문, 일화, 감회 등을 썼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명, 지물, 경관 또한 다수 언급하고 있어 조선 지리학이나 문화재학 등 유관 분야에서도 학술 자료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유람사 외에도 이은상은 증별사, 화답사, 견회사 등을 남겼다.

26) 다음은 그 몇 가지 가설이다. 첫째, 이은상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증별사에 특별한 嗜好를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당시 이은상이 속한 교유 집단 내에서 증별사가 유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증별사를 주는 대상에게 자신의 사 짓는 실력을 과시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은상 사의 형식상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할 만하다. 첫째, 모든 사가 題序를 동반하고 있다. 한 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에 제서가 달려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이은상이 의도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은상은 제서를 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기고, 사 본문에 다 담아 내지 못한 내용의 부연 서술을 제서로 덧붙임으로써 해당 작품의 완정성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짧은 사패 여러 종류가 두루 사용되었다. 이은상은 38수의 사를 쓰면서 총 28종의 사패를 이용하였는데 2회 이상 쓴 사패는 4종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24종 사패를 1회씩 골고루 썼다. 이는 가급적 다양한 사패를 섭렵하고자 했던 작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28종은 모두 小韻으로 분류되는 짧은 사패인데, 여기에는 小韻이 아무래도 장편 慢詞보다 창작이 용이하기 때문일 가능성, 또는 짧은 사에 대한 작자의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셋째, 사 운자의 운용이 능숙히 이루어졌다. 이은상은 각 사패별로 상이한 운자 배치 위치와 운자 평측 규칙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운 운용력을 바탕으로 次韻詞도 3수 지어 남겼다.

이은상 사의 내용상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이은상 사에는 구체적 사실이 소상히 반영되어 있다. 제서나 사 본문에 구체적 일자나 절기가 명시되어 있고, 조선의 자연 경관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실존 지명, 지물, 인명 등의 고유명사가 다수 등장한다. 즉 이은상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실제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사에 썼다는 것인데, 이는 이 제현 등 여말선초의 옛 문인들이 중국의 瀟湘八景 허경을 상상해 묘사한 「巫山一段雲」 연작사를 지었던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둘째, 이은상 사는 뚜렷한 목적성을 지닌다. 그의 사 대부분은 왜 그 사를 썼는지, 어떤 목적 하에 썼는지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작품 내용을 근거로 쉽게 유추 가능하다. 예컨대 스스로 “평생의 소원”이라 말한 바 있는 진기한 유람을 하는 중의 기억과 감흥을 담은 紀行의 목적, 지인의 편지에 화답하는 목적, 작별하는 이에게 진심 어린 아쉬움을 담아 전하는 목적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형식상, 내용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은상이 당시 어떠한 관점과 자세로 사 창작에 임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한 사의 형식은 최대한 원형 그대로 성실히 수용하되 내용 면에서는 자기 고유의 시선과 목소리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풀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마다 제서를 꼬박꼬박 달고, 다양한 小令 사패를 소화했으며, 사패별 운자 규칙을 엄수했던 것은 모두 이은상이 사의 형식 요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이행하였던 흔적이다. 그리고 사의 내용에 자신과 주변의 구체적 실제 사실을 썼던 것, 아울러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작사를 하였다는 것은 그가 주체적으로 사 창작에 임하였음을 뜻한다. 中國詞를 적당히 흉내 낸다거나 일없이 억지로 詞譜에 맞춰 글자 수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생각, 사연과 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自己化”한 사를 써낸 것이다. 요컨대 이은상사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외형 틀을 이용해 그 안에 “나”라는 중심 콘텐츠를 빼곡히 채운 결과물인 셈이다. 이은상의 사 창작에 관한 연구는 중국 전래 詩歌 장르인 사를 조선 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유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근접 고찰의 일례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詞文學 수용에 자주적으로 임하였던 이은상을 통해 한문시가문학의 다변화에 일조하였던 조선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의 한 단면이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 오산 :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 류기수, 「『歷代韓國詞總集』補正記」, 『민족문화』(제39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 류기수, 「中國詞의 受容과 創作 : 새로 발견된 高麗·朝鮮詞를 中心으로」, 『중국어학 연구』(제65집), 중국학연구회, 2013.
- 류종목, 「고려 및 조선 문단에 있어서의 중국 사문학의 수용과 전개」, 『중국어학 보』(제40집), 한국중국학회, 1999.
- 김태준 저, 최영성 역주, 『譯註朝鮮漢文學史』, 서울 : 시인사, 1997.
- 서거정 등 저, 권태영 등 역, 『국역 東文選』, 서울 : 민문고, 1989.
- 李冬紅, 「宋論題序略論」, 『貴州社會科學』(總178期 第4期), 2002.
- 龍榆生, 『唐宋詞格律』, 香港 : 中華書局, 1987.
- 陶善達, 「論宋詞題序的功能」, 『時代漫遊』(第4期), 2014.
- 張曉寧, 『宋詞題序研究』, 西安 : 陝西人民出版社, 2013.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i Poetry of Joseon Literator Lee EunSang

Kim, Ji-hyun

Lee EunSang(李殷相), a literator of the Joseon era, composed 38 pieces of Chinese Ci poetry which now can be found in his anthology Donglijib(東里集). Those ci have the formal features that each piece was accompanied by its own foreword, 28 kinds of cipai were quite evenly used, and rhyming words were well operated. As for the content features, it is clear that Lee's ci contain plenty of detailed factual factors, and that those ci were written under obvious purposes. Lee sincerely observed the original Chinese ci forms, while filling it with his self-based contents, using his own perspective and voice. The study on Lee EunSang's ci will serve as an example of the research on how the literati of the Joseon era adopted and enjoyed the Chinese poetry genre.

Key words: Joseon literati, Lee EunSang, anthology Donglijib, Chinese Ci poetry, observance of original form, self-based contents.

투 고 일 : 2017. 4. 10. / 심 사 일 : 2017. 4. 15. ~ 2017. 5. 15. / 게재확정일 : 2017. 5. 20.